

CJ대한통운 소속 골퍼 PGA서 '승승장구'

임성재·강성훈·안병훈 선수 '톱 10' 진입

CJ대한통운은 자사가 후원하는 골퍼 임성재, 강성훈, 안병훈 선수가 지난 6~10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베이힐 클럽 앤 롯지에서 열린 PGA 투어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톱 10'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웹닷컴 출신으로 이번 시즌 PGA 투어 무대에 처음으로 입성한 '슈퍼루키' 임성재는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를 기록하며 공동 3위로 자신의 통산 최고 순위를 경신하며 대회를 마쳤다. 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의 프렌체스코 몰리나리와 3타차로 우승경쟁을 펼쳤으며 토미 플릿우드, 라파 카브레라 베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역시 CJ대한통운 소속인 강성훈과 안병훈 선수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강선수는 8언더파 280타로 공동 6위를, 안선수는 7언더파 281타로 공동 10위를 차지했



CJ대한통운이 후원하고 있는 (왼쪽부터) 임성재·강성훈·안병훈 선수.

다. 또 두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톱 10에 오르며 상금은 물론 세계 최고의 골프대회로 불리는 '디오픈' 출전권까지 확보했다.

CJ대한통운은 2016년부터 글로벌 무대에

서 활동하고 있는 유망 선수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투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남자 골프 선수들에 대한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아자동차 KBO 리그 8년 연속 공식후원

자동차 부문 공식 후원 조인식 열어

기아자동차가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KB O리그를 8년 연속 후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12일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권혁호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자동차 부문 공식 후원' 조인식을 열었다.

2012년부터 KBO 리그 후원을 지속해 온 기아차는 후원 계약 연장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는 2019 KBO 리그 공식 후원사로서 ▲정규시즌, 올스타전, 한국시리즈 MVP 차량 후원 ▲KBO 업무용 차량 후원 ▲주요 경기 시구 차량 운영 ▲TV 중계 내 가상광고, 경기장 전광판 광고, 미디어 백드롭·더그아웃 브랜딩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마



권혁호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왼쪽)과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케팅을 통해 국내 야구 팬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3월 14일 (음 2월 8일)



48년생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면 만회하기 힘들다. 60년생 실망도 희망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72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르면 실패가 적다. 84년생 작은 실수가 큰일을 만드니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보자.



54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66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쥐더라도 달래야 한다. 78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만 성공. 90년생 눈 둘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 하라.



49년생 도와주고 좋은 소리 듣는다. 61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운이 들어온다. 73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지만 현상 유지에 힘써야 한다. 85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



55년생 티끌을 모으면 티끌에 불과하니 공연한 일에 힘쓰지 마라. 67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79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 91년생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날아가서는 안 된다.



50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가족과 대화하다 3차례에 의해 의견대립이 생긴다. 74년생 인수 운이 있으니 교섭이나 거래가 순조롭다. 8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56년생 인생의 좌표를 다시 순회야 할 때가 아닌가. 68년생 바보 같은 선택 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80년생 결혼은 2인3각 경기이니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92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다.



51년생 시작이 산뜻하니 마무리도 좋다. 63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청겨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75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속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 아닌가. 87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좀 더 신중히 해야.



57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일을 풀어나가자. 69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된다. 81년생 윗사람에게 잘 보여 놓는 것이 내일을 편하게 한다. 93년생 내가 웃어야 기울도 웃지 않겠는가.



52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꽤 멋지다. 64년생 변동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 76년생 원가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는 없다. 88년생 진실이 최상의 답은 아니니 오늘은 잠시 침묵하라.



58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70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로움을 준다. 82년생 지인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94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53년생 지나친 관심은 가족이라도 상대를 지치게 한다. 65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77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비록한 땅이 될 것이다. 89년생 영업에도 기승전결(起承轉結)이어야.



59년생 분수를 지켜 행동하면 실수가 적다. 71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밀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83년생 7수지와 붉은색이 행운을 주는 날. 95년생 지칠 수 있으나 의외의 큰 이득이 생기니 마음이 흡족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3	6	7	4	1		2		
4	5				9	3		
7	4			2		8		
		6	8					
6	2			9	1			
2	6				1	9		
5	3	9	6	8		4		
		3						

			4		8			
3	8				4	5		
2		9	3			8		
1	3		4		8	6		
		7	9					
2	7		8	9		3		
		6	8	5	4	2	1	
2	7		8	5	4	2	1	
7	5		2	8	1	6	9	3

스도쿠 정답								
1	4	9	8	3	2	5	7	6
5	7	3	9	1	6	8	2	4
2	6	8	5	4	7	3	1	9
6	8	2	4	7	3	9	5	1
9	1	5	6	2	8	4	3	7
7	3	4	1	9	5	2	6	8
4	5	7	2	8	1	6	9	3
3	9	6	7	5	4	1	8	2
8	2	1	3	6	9	7	4	5
3	4	1	2	7	6	5	9	8
8	7	2	8	1	5	7	3	4
9	6	2	8	1	5	7	3	4
2	5	7	4	9	3	6	8	1
4	8	6	7	3	9	2	1	5
1	9	3	5	4	2	8	7	6
7	2	4	9	5	3	6	5	9
6	3	8	1	2	7	4	5	9
5	1	9	4	6	8	3	2	7

문제 제공=보노스

미세먼지 특수 노린 알파한 상술



기자 수첩

구서윤
(산업부)

5일간 미세먼지 관련 용품 판매가 전주보다 최대 7배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는 판매가 급증해 생산라인을 풀어놓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알파한 상술도 덩달아 활개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1팩에 25개의 마스크가 들어있는 제품의 가격을 하룻밤 사이 4000원 인상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대부분 마스크가 일회용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상당하다.

포털사이트에서 가격을 보고 판매 사이트로 이동하면 가격이 몇 만원씩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수요가 많은 틈을 타 수익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가뜩이나 나빠진 공기질 때문에 답답한 소비자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한 업체의 잘못이 크다. 사실 미세먼지는 최근 몇 년 사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지만 과거부터 존재했고,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당장의 수익만을 바라볼지 미래를 바라볼지는 업체에 달렸다.

/yuni2514@metroseoul.co.kr

김상희의四季

꽃처럼 피어나는 춘분



춘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라는 건 일반 상식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정도 알고 있는